

막걸리 착각 '노인 잡는 농약병'

지난달 28일 오후 4시10분께 영광군 대마면 한 마을회관에서 김모(85) 할머니는 막걸리병으로 보이는 1ℓ 크기 플라스틱 병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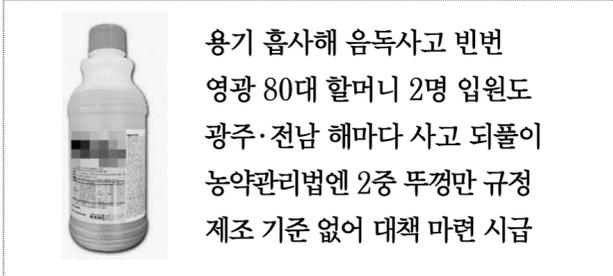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 김 할머니는 뚜껑을 따고 한 모금을 마셨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오모(89) 할머니도 손가락으로 짚어 냄새를 맡았다. 20~30분 뒤 할머니들은 갑자기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할머니는 이날 마을이장이 붙철 대청소를 위해 마을회관 신발장 옆에 놓아둔 의료용 살충제(람다그린)를 용기가 비슷한 막걸리병으로 착각해 마신 것이다.

다행히 소량만 마신 김 할머니는 위세척을 받고 퇴원했다. 김 할머니가 마신 의료용 살충제는 모기 성충, 바퀴벌레, 털 진드기를 잡는 용도로 쓰이는 약품으로 알려졌다.

초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남지역 시골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농약을 음료수나 막걸리 병으로 착각해 마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재 시중에 유통된 농약 및 살충제 가운데 일부는 음료수 용기와 흡사해 문맹 또는 노인 등으로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잘못 마시는 사례도 빈번해 각



용기 흡사해 음독사고 빈번 영광 80대 할머니 2명 입원도 광주·전남 해마다 사고 되풀이 농약관리법엔 2중 뚜껑만 규정 제조 기준 없어 대책 마련 시급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농약 등 독극물 용기에 대한 제조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농약을 음료수 등으로 착각해 마시거나 피부에 바르는 등의 사고를 겪었다는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15건, 2016년 17건, 2017년 9건 등에 이른다.

농약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농업진흥청과 의료용 살충제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음료수와 혼동을 일으키는 용기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도, 용기 제작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농약은 1944품목 2972종에 이른다.

농약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살균제(분홍색), 살충제(녹색), 제초제(노란색) 등의 뚜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라벨의 글자 크기를 조절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 2중 뚜껑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용기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는 탓에 제조업체별로 소비자에게 호감

을 주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용 살충제도 마찬가지다.

광주 광산구에서 10년 동안 농약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창호(55)씨는 "농약업체별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요즘은 용기 모양도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제품은 하얀 바탕의 용기에 초록색 뚜껑으로 포장돼 인듯 보면 막걸리병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글씨를 못 읽거나 노안으로 시력이 저하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음용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조업체의 관심은 여전히 느슨하다.

의료용 살충제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용기를 바꿀 경우 금형도 바뀌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유통된 제품의 용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된 농약은 뚜껑 색을 다르게 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막걸리 병과 비슷한 농약 용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농약 포장 용기에 관한 민원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심판 제청

“국민 요구와 의지도 존중해야”

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이종민 부장판사)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 등 2명의 사건에서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 부근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 법원, 현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 등은 2015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직원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

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를 대상으로 찬반 의사를 집단으로 표명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하려는 국민 요구와 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가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결정되는 국회 인근에서 행의·요구 집회를 할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인근에서 집회 자유를 가급적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국회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에 지정한 법 조항은 국회 기능만을 일반적으로 보호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심판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옛 여친 흉기 위협 감금·폭행 40대 구속

광주광산경찰은 7일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을 한 혐의(특수감금치상)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카페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강모(여·41)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소나타 차량에 태운 뒤 카페에서 45km 떨어진 담양군 남면으로 이동, 2시간 3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

별을 통보한 강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강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에서 김씨는 “강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지난달 다른 남자와 강씨가 결혼을 해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보건소장에 행정공무원 임명

전북 진안군수 약속기소

보건직이 맡아야 할 보건소장에 일반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약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군수를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으니,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급 외제차 살 것 처럼 과시하며 양주 마시고 '오리발'



“고급 수입차를 사기로 했다”며 주점 임주에게 독일 BMW사의 신

차 소개 책자를 보여준 뒤 양주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B(여·51)씨가 운영하는 모 주점에서 24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먹

은 뒤 돈이 없으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

“모직자인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고급 수입차량의 홍보책자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임주의 환심을 산 뒤 술을 마셨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신부, 여고생 성폭행 시도

천주교 대전교구 공개 사과

2001년 대전의 한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던 신부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미투(Metoo) 폭로에 대해 천주교 대전교구가 7일 공개 사과했다.

유홍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특별 사목서한을 통해 “최근 발생한 교구 내 성추문 사건에 대해 대전교구를 이끄는 교구장으로서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여러 분께 용서를 청한다”며 “량려없는 지지와 기도를 보내주시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황망함과 배신감에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유 교구장은 “대전교구 내 일련의 사태는 일시적이며 일회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수직적인 교회구조와 영성 교육 및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대전교구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교회의 근본 소명을 철저히 사는 교구로 새로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 여성은 고등학교생이던 2001년 학교에서 종교 교육활동을 담당했던 대전교구 신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한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자체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신부를 정직 처분했다.

연합뉴스

세계여성의 날...“성평등 위해 함께 싸워요”



‘세계여성의 날’(8일)을 맞아 광주여성민우회원들이 7일 광주시 동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성추행 예방 ‘미투&위드유’(ME TOO&WITH YOU)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급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병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정가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정가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정가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정가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정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